


# 키르기스스탄

	<b>국명</b>	키르기스공화국	<b>주요 민족</b>	키르기스스탄인(73%), 우즈베키스탄인(15%), 러시아인(6%) ※ 고려인 약1만 8천명(0.3%)	<b>종교</b>	이슬람교(80%), 러시아정교(15%), 개신교 등 기타(5%)
	<b>인구</b>	약 640만명	<b>GDP(1인당)</b>	1.293\$	<b>정부형태</b>	의원내각제(사실상 이원집정부제)
	<b>기후</b>	대륙성, 건조 기후	<b>수도·위치</b>	• 비슈케크(인구 약 103만명) • 중앙아시아(중국,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, 타지키스탄 접경)	<b>대통령</b>	마미토프(국회의장 겸 대통령 대행)
	<b>언어</b>	키르기스스탄어(공식어), 러시아어(공용어)	<b>면적</b>	약 199.951km <sup>2</sup> (한반도의 약 0.95배)	<b>시차</b>	우리시간 -3시간

## 키르기스스탄의 소방기관

### 비상사태부(중앙소방본부)



#### 역할

- 중앙 비상사태부에서 재난 및 소방정책을 관장
- 1 화재진압, 교통사고 등 구조출동 및 홍수 등 각종재난 초동대응
  - 2 지방조직 - 87개 소방서  
- 구조대 및 구급대 각각 별도 운영
  - 3 소방인력 전체 3,000여명

## 국제교류 협력현황

### MOU

#### 비상사태부 ↔ 소방방재청(2011)

- 급경사지, 산사태 등 경사면 및 구조구급분야의 재난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교류 및 정보공유

#### 비상사태부 ↔ 한국소방산업기술원(2020)

- 소방용품의 다양한 시험 방법에 대한 교육·훈련
- 비상사태부 소방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
- 기술원 소방용품 시험 시스템의 적용 및 연구 등

### 방문

#### 비상사태부 ↔ 한국소방산업기술원(2020)

- 키르기스스탄 비상사태부 장관 내방, 재난관리 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

**무상차량 '7대' 지원**

# 교류 사진 및 보도자료 등

## 소방방재청-키르기스스탄, 재난대응 협력 강화

△ 양동주 기자 | ○ 승인 2011.06.01 | ☎ 댓글 0

### 구조구급분야 기술교류 MOU 체결

[투데이에너지 양동주 기자] 소방방재청이 키르기스스탄 공화국과 재난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.

소방방재청(청장 박연수)은 5월31~6월1일 양일간 박연수 청장이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을 방문해 보르비예프 비상사태부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키르기즈 비상사태부와 기관간 협약(MOU)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은 급경사지, 산사태 등 경사면 및 구조구급분야의 재난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기술교류 및 정보공유에 협력키로 했다.

박연수 청장은 지난달 31일 키르기스스탄 소방안전청과 구조훈련센터를 방문하고 급경사지 경사면 현장을 둘러본 후 보르비예프 비상사태부장관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간 '경사면분야' 기술 제공 및 '급경사지분야' 국제방재교육과정 교육개설과 구조·구급활동 및 119신고시스템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.

1일에는 산사태 등 급경사지로 인한 재난 방재 정보기술 교류는 물론 공동연구, 회의, 교육연수 등을 통해 국제적 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재난방재관련 기술전문가 교환, 공동의 프로젝트 개발 및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에 의견을 같이 했다.

한편 키르기스공화국은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차 UN재해경감 아시아자료회의에 비상사태부 차관이 참석해 급경사지 모니터링 전문가 프로그램 및 구조구급관련 기술협력 등을 우리 청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이 구조구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술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.

